

문 의	대변인실	대변인 이 춘 무 사무관 이 승 윤	042-481-5272
	2018년 9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 매체는 9월 9일(일)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발명특허 · 과학 · 실험카메라 온라인 콘텐츠

『출동 특허청 검증단』 10일 공개

『수상한 녀석들』 협업으로 국민 참여확산 기대

- 특허청은 국민의 발명특허 인식제고를 위해 새로 제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콘텐츠, 『출동 특허청 검증단』 제1회를 오는 1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.
- 국민 누구나 소재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이 콘텐츠는 ‘발명특허, 과학, 실험을 융합한 실험카메라’ 형식이며, 특허청 유튜브(YouTube)와 페이스북(Facebook) 등으로 공개될 예정이다.
-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궁금증과 호기심을 특허청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댓글로 올리면, 특허청 검증단이 실연이나 실험을 거친 후,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방식이다.
- 지난 7월부터 접수된 검증요청 댓글은 총 400여건. ‘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정말 시원해질까?’, ‘롤러코스터를 탈 때 소리를 지르면 무서움이 줄어들까?’, ‘눈을 감고 콜라와 사이다를 구분할 수 있을까?’, ‘안약을 넣을 때 반드시 입을 벌려야 하는 이유?’ 등이다.

- 한편, 지난 3일부터 촬영에 들어간 첫 회 “이열치열(以熱治熱) 검증 편”에는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(youtuber) 『수상한 녀석들』이 검증단으로 활약하고 있다.
- 유튜브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『수상한 녀석들』은 선데이(이효준)와 영우(오석)가 출연하는 실험카메라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구독자 약 62만명, 편당 조회 수는 보통 100만을 넘는다.
-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“창의적 아이디어와 호기심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,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궁금증을 통해 발명 특허에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『출동 특허청 검증단』을 기획했다.”고 말했다.
- 『출동 특허청 검증단』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유튜브 등 특허청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, 시민들의 검증 요청 제보는 페이스북으로 계속 접수할 계획이다. 댓글을 올려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.

[붙임] 출동 특허청 검증단 홍보포스터



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변인실 이승윤 사무관에게 연락(☎ 042-481-5272)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출동 특허청 검증단 홍보포스터

